

**전일동향**

전일대비 1.40원 하락한 1,334.0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전일대비 1.40원 하락한 1,33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40원 하락한 1,332.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위안화와 호주달러 등 아시아 통화 약세 속에서 원화 매수세 유입에 하락폭을 축소했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재료 부진으로 1,330원 초중반에서 횡보했고 1,334.0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4.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8.6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2.00	1335.00	1330.80	1334.00	1333.20
엔화	886.81	892.07	883.89	889.60	-	
유로화	1432.49	1438.85	1428.21	1436.9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2	-5.27	-12.18
결제환율(수입)		-0.45	-4.59	-10.81	-22.9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달러 약세 연장에...1,3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34.00) 대비 4.10원 하락한 1,328.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혼재 속 달러 약세 연장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8% 감소하여 예상 및 전월치(-0.2%, +0.4%)를 하회했고 23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초 소비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국채금리는 장중 낙폭을 확대했으며 달러화 약세로 이어졌다. 이후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자 미국채 금리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표 혼재 속 달러지수는 하락 흐름을 연장하며 전장대비 0.43% 하락 마감했다. 이와 같은 달러화 약세에 역외 원화 강세 배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간밤 뉴욕 주요증시는 상승 마감하며 성장주 위주의 위험선호 회복이 계속되었고 코스피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3.50 ~ 1333.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2.0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10원 ↓
	■ 美 다우지수 : 38773.12, +348.85p(+0.9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3.6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8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